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River & Culture



이 현 중 |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고고학전공
(ruslee@mokpo.ac.kr)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생명의 원천, 영산강

1. 영산강의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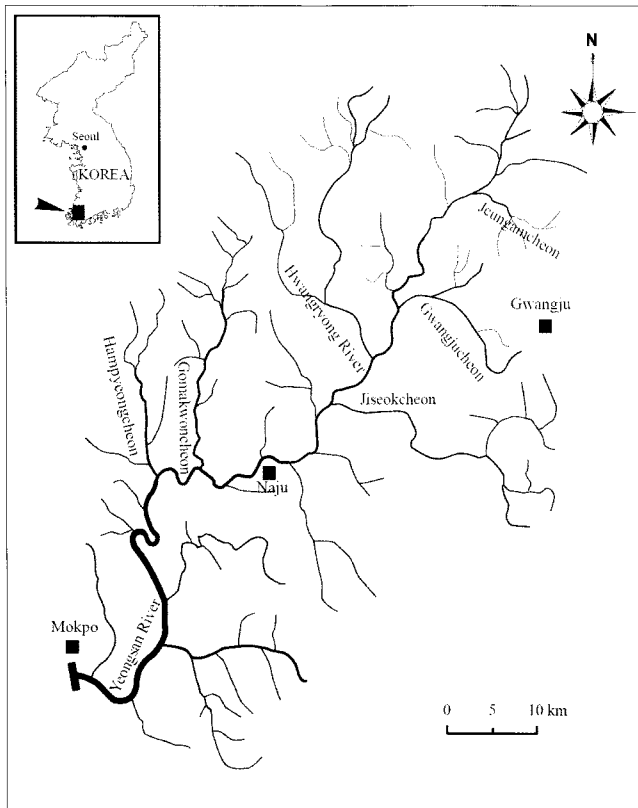
영산강은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우리나라 4대강의 하나로서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연리 용추봉(해발 560m)에서 발원하여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흐르며 주요 지류인 황룡강, 오례천, 광주천, 지석천, 문평천, 고막원천, 함평천 등과 합류하여 광주광역시와 나주 및 목포를 거쳐 서해로 유입된다. 영산강은 총 유역면적 3,371.4km², 유로연장 136.0km

(본류)로서 한강(482km), 낙동강(522km), 금강(396km)에 견주어 유로가 짧은 편이나 많은 지류하천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나주평야를 관류하며 예로부터 산업과 교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산강은 물길이 굽이쳐 범람원이 강 주변에 발달하였고 중·하류로 가면서 굽이치는 정도가 심해져 총적층이 넓게 발달하였으며 우각호(牛角湖)를 군데군데 이루고 있다. 영산강은 강길 경사가 완만하고 하구에 가면 바다와 만난다.



영산강은 유역면적에 비하여 북쪽, 동쪽, 서쪽 등 삼면에서 많은 지류하천들이 본류로 합류하는 수계특성을 보이고 있어 우기에 급격한 유량증가를 보인다. 1981년 12월에 영암과 목포를 잇는 하구둑이 축조됨으로써 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해역인 서남해의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예로부터

〈그림 1〉 영산강 항공사진 (사진출처:영산강유역환경청 <http://yeongsan.me.go.kr>)



(그림 2) 영산강 수계

터 조석(潮汐)의 영향이 나주 부근까지 미쳐 강 가장자리의 농경지에 하천 범람·농토 침식 등의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현재 이 하구둑은 영산강과 바다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영산강 유역은 영동-광주 함몰대의 남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로부터 신생대 제4기 충적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암석이 분포하며 일부 화강암체를 제외하고는 분포형태가 대체로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암층은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시대 미상의 변성퇴적암류, 고생대 퇴적암류, 중생대 트리아스기에서 쥬라기에 걸쳐 관입한 화강암류, 중생대 퇴적암류 및 화산암류, 기타 화성암류, 신생대 제4기 충적층 등으로 이루어졌다. 신생대 제4기 충적층에는 영산강 유역을 점거하며 살았던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이다.

구석기 인류가 이동·확산하고 정착했던 시기는 신생대 제

4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면서 극심한 환경적 변화를 겪었던 시기로 기후변동, 지형변화, 해수면 변동 등을 수반한 자연환경의 격변기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연환경은 당시 인류에게 생존과 더 나은 생활터전을 찾아 이동과 확산을 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4기의 자연환경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구석기 인류의 이동과 정착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당시의 자연환경에 대한 단서는 제4기층에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석기 유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4기층의 분포 파악과 이를 통한 고환경 복원이 요구된다. 구석기 유적들이 많이 분포하는 영산강 유역의 지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과 쥬라기의 흑운모화강암 및 백악기의 유문암질 화산암류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영산강과 같은 주요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서는 하안단구 퇴적층이 서로 다른 고도에 여러 매가 발달되어 있으며 대부분 원마도가 좋은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하류에 발달한 평야지대에서는 최대 약 30m 두께 이내의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과 인접한 평야지대에는 하부에 해성 기원의 연안퇴적층이 발달하여 있으며 그 상부에는 하천 범람퇴적층이 분포하고 그 사이에 토탄층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바다에 인접한 산사면에는 부분적으로 해안단구 퇴적층이 발달되기도 한다.

영산강 유역에는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는 제4기층이 폭넓게 발달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하상 충적층이다. 이 충적층은 자갈, 모래, 실트, 점토 등 다양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영산강 중·하류 지역이 평야지대를 관류하기 때문에 하도경사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리고 따라서 운반되는 퇴적물 입도가 일반적으로 작은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 탄층이 협재되기도 한다. 영산강 유역의 제4기층은 오늘날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하안 단면이나 우각호와 같은 배후 습지 퇴적층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다.



(그림 3) 토양쇄기 구조가 있는 퇴적층(나주 당기유적)

영산강 하류 지역인 나주시 공산면과 동강면 일대에 분포하는 제4기층은 현재보다 약 15m 이상 높은 지점에 발달하는 지난 최후 간빙기의 해수면 변동에 의한 둥근 잔자갈 크기의 편이 다량 포함된 자갈층이 많이 분포하며 그 상부에는 중세립질 황색 모래층이 분포하고 있다. 그 위로는 평야지대의 낮은 구릉지 위에 적색 고토양층과 갈색 내지 암갈색 고토양층이 분포하고 있는데, 전자는 지난 최후 간빙기의 고토양층이고 후자는 약 25,000년 전부터 시작된 최후 극빙기(LGM)에 형성된 것이다. 러시아의 지질학자들이 사탄기라고 할 만큼 이 시기는 매우 추웠던 시기였다. 이러한 극빙기를 지지하는 고토양층은 영산강 하류와 하구의 해안평야를 구성하는 제4기 퇴적체 최하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조간대성 퇴적층과 범람원 퇴적층은 극빙기가 지나가면서 점차 해수면이 상승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해안지역에서는 홀로세 연안퇴적층이 분포하나 그 이전의 해성이나 하성 퇴적층의 분포는 미약한 편인데 이는 지난 최

후 빙하기 동안 해수면 하강으로 침식이 우세하게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경사가 완만한 해안가 산록에는 산사면 위에서 밀려 내려와 형성된 홀로세 이전의 봉적층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사면 봉적층 내에는 최후 간빙기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갈색 토양층과 최후 빙하기에 생성된 토양쇄기구조가 발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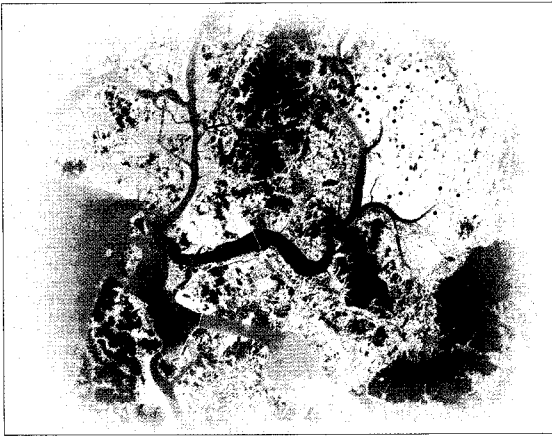
2. 영산강 최초의 인류

가. 영산강 유역 최초의 인류를 추적하는 고고학자들

영산강 유역에서 본격적인 구석기시대 유적 조사는 1996년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영산강 상류에 해당하는 광주 치평동유적을 시굴조사하면서부터이다. 1997년도와 1998년도에는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나주시와 영암군의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실로 많은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2000년도에 접어들어 많은 유적들이 발굴되었는데, 영산강 중류에 해당하는 나주 금천면의 촌곡리유적과 신가리 당가유적, 나주 공산면의 용호유적과 영산강 중상류에 위치한 화순 도산유적과 사창유적 등이 대표적인 유적들이다. 영산강의 좌우편에 위치하는 화순, 나주, 영암, 무안 등 여러 지역에서는 100곳이 넘는 구석기시대 유적이 새롭게 발견되었으며 지금도 적색 점토층이 보이는 곳에서는 자주 구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 유적들의 석기문화는 모두 자갈돌석기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자들의 노력으로 영산강 유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조사결과로 볼 때 영산강 유역의 구석기 유적들이 영산강 본류나 지류의 양옆의 구릉지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적의 분포권을 살펴볼 때, 영산강 유역에 접거하던 생활패턴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설정하여 영구주거 지역으로 삼는 양상이 아니라 영산강 지류 옆에 형성되어 있는 구릉의 전 지역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많은 하

천에서 많은 유적이 분포하는 것은 당시 구석기인들이 그들의 활동영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살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림 4〉 영산강 유역 구석기유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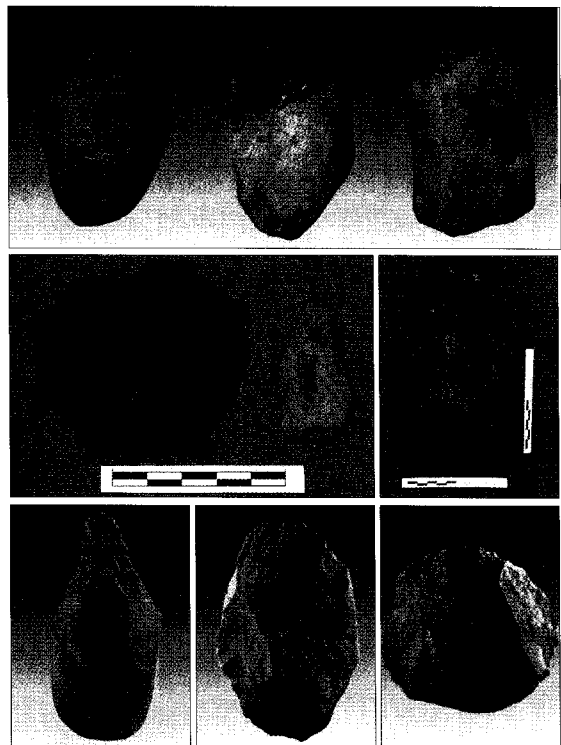


〈그림 5〉 나주 장동리 용동유적의 자연과학조사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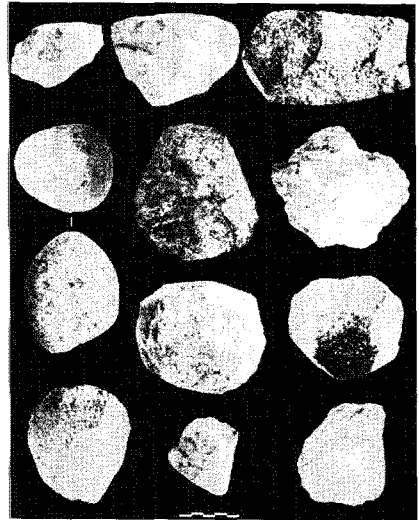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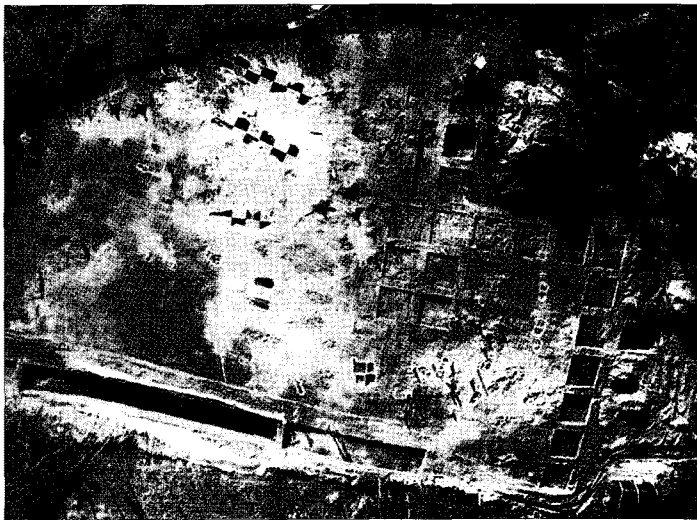
나. 곧선 사람(Homo erectus)과 영산강

동북아시아에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100만년 이전에 중국을 중심으로 고인류가 정착하였다. 이 고인류는 중국의 여

러 지역으로 이동하며 살았다. 특히 50만년전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북경원인이 살았고 이들은 곧선사람(Homo erectus)이었다. 최근 북아시아 특히 남부 시베리아에서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산악 알타이지역에서도 이들의 도구가 발굴되었다. 이 지역에 정착한 인류는 자갈돌석기문화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이동과 정착을 반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도 이들 중 일부가 정착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갈돌석기가 출토되는 전기구석기시대로 추정되는 유적은 금굴유적, 석장리유적, 전곡리유적, 수양개Ⅲ유적, 하화계리 Ⅲ 작은솔밭유적, 장산리유적 등이다. 이 유적들은 아직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보다 정확한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자갈돌석기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전기구석기시대 유적의 발견은 그다지 먼 미래의 일은 아닌 듯하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아직 전기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구석기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강의 양 언덕과 야산의 정상부에서 채집된 석기들 가운데 전기구석기시대의 것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림 6〉 동북아시아의 전기구석기시대 석기 (上: 러시아 가라미유적, 中: 중국 주구점유적, 下: 한국 전곡리유적)



(그림 7) 당가유적의 전경과 3문화층 출토유물

다. 영산강에서 자갈돌석기를 사용한 최초의 인류

중기 구석기시대(13만년~4만년전) 사람들은 석재 때문에 정형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격지를 생산하였고, 찌개와 여러면석기뿐 아니라 주먹도끼를 점차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석기의 종류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매우 다양해졌으며, 지역의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석재의 종류도 많아지면서 석기제작기법 또한 보다 정교해졌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화순 도산유적 나주 당가유적의 맨 아래층에서 이 지역 최초의 인류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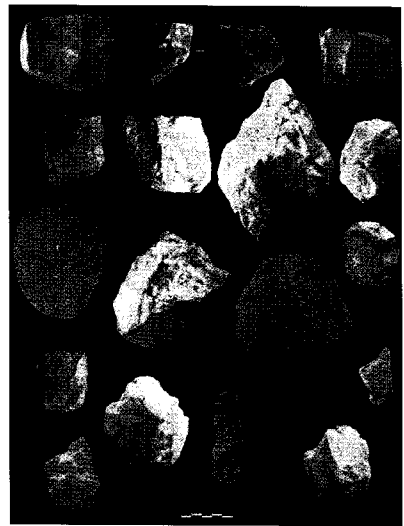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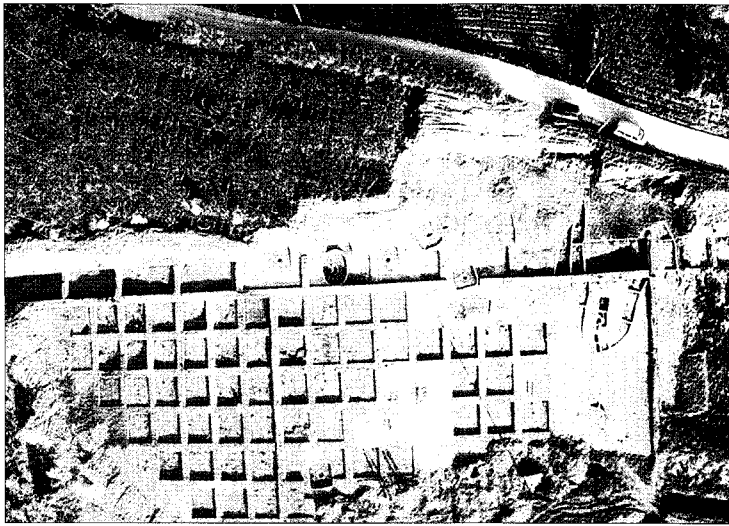
당가유적은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당가마을의 언덕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에서 가까운 북쪽에는 영산강 중류의 지류인 지석강이 흐르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 문화층 이외에 삼국시대 토기가마, 수혈유구, 토광묘 및 석곽묘 등이 확인되었다. 당가유적에서는 9개의 지질층에서 모두 3개의 구석기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자갈돌석기전통으로 대별되는 이 유적의 석기문화는 주로 석영제 자갈돌을 석재로 활용한 몸돌, 여러면석기, 외면찌개 등이지만 격지 및 격지석기들도 함께 발굴되었다.

제3문화층(후기구석기 전엽 : 4만~3만년 전)에서는 석영제 자갈돌을 바탕으로 특히 전면을 거의 다 가공한 여러면석기와 타격면은 자연면이지만 떼기 방법은 후기구석기시대처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몸돌, 양면찌개, 간단한 잔손질을 가하여 만든 석기들도 확인되었다.

라. 영산강에 등장한 현생인류(Homo sapiens)

영산강에는 중기구석기시대에서 후기구석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당가유적의 제2문화층은 특히 중기-후석기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시기에 해당한다. 과도기의 성격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북한에 위치한 용곡동굴유적, 남한의 봉명동유적 등이 있으며, 모두 자갈돌석기를 기반으로 절대연대는 50,000년~35,000년 전이다. 영산강유역에는 제2문화층(중기-후기구석기의 과도기-45,000년 전)에서는 석구라고 판단될 만큼 둥근 형태의 여러면석기, 외면찌개 및 양면찌개 그리고 여러 점의 격지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지층에서는 많은 양의 목탄이 확인되었는데, 절대연대(C-14) 측정결과 44,710±1,150BP(GX-28665-AMS), 45,380±1,250BP(GX-28666-AMS)를 얻었다. 과도기를 겪는 영산강 유역의 사람들은 석영제 강자갈돌뿐 아니라 석재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석기를 제작하였다. 석기문화는 중기구석기시대의 특징을 이어가며 점차 정교한 격지석기를 자주 제작할 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해진다.



〈그림 8〉 나주 촌곡리유적의 전경과 출토유물

마. 영산강의 주인, 현생인류의 적응과 도전

이 현생인류들은 과도기를 거치며 영산강 유역의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산강과 인접 언덕과 산에서 생계자원을 획득하며 살았다. 물론 그들의 석기문화의 뿌리는 자갈돌석기문화이지만 당시 동북아시아 주변의 문화 환경은 변해갔다. 그것은 후기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돌날석기문화이다. 하지만 여전히 영산강 유역에서는 자갈돌석기문화를 선호했으며, 부분적으로 그들의 기술을 적용하거나 시도하기도 하였다. 영산강 유역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발굴된 유적들이 적지 않다. 이미 언급한 나주 당가유적, 나주 촌곡유적, 치평동유적, 도산유적, 사창유적, 용동유적 등이다.

당가유적과 인접해 있는 촌곡유적에서는 당가유적의 제3문화층과 동일한 지층에서 구석기시대의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낮고 평평한 구릉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언덕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 가까이 지석강이 흐른다. 이 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 문화층(약 3만년전), 청동기시대의 송국리형주거지, 수혈유구 등도 함께 발굴되었다. 석기는 석영제 자갈돌로 제작된 주먹도끼, 여러면석기, 양면찍개, 외면찍개, 대형긁개, 몸돌과 격지 등과 양질의 석재로 제작된 석기들이 함께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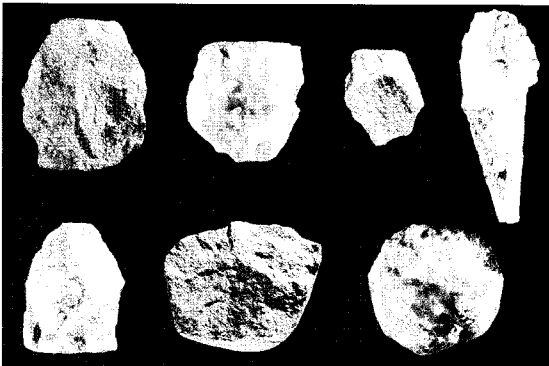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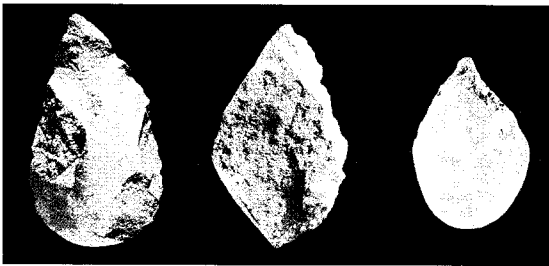
이 석기들 중에는 돌날떼기의 흔적이 보이는 몸돌과 돌날격지들도 있다. 돌날떼기 기법은 체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석재 또한 특별히 선택하였다. 석영제 자갈돌을 가지고 돌날떼기를 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촌곡유적에서는 일정한 돌날떼기의 규칙을 보이는 석기들이 발굴되었다. 이 기법이 실제로 좋은 재질로 제작된 동북아시아의 전형적인 돌날떼기와 같은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촌곡유적에서 살고 있던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다양한 자갈돌 다루는 기법 이외에도 발달된 석기제작기법을 시도하는 역동성을 보여준다.

화순 사창유적은 촌곡유적 만큼 풍부한 석기문화를 보여준다. 특히 이 유적의 1, 2문화층의 주먹도끼와 석영제로 제작된 후기구석기시대의 전형적인 석기인 스페찌르개는 영산강 유역의 후기구석기시대 사람들의 문화적 역동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석기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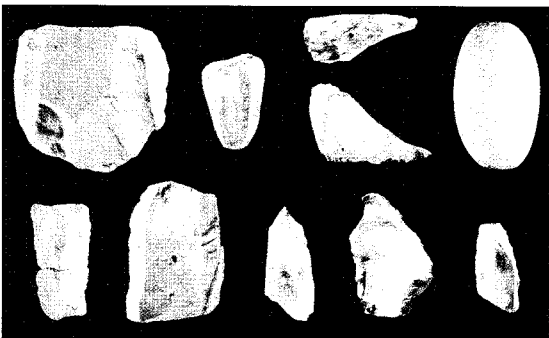
2만4천년에서 1만8천년 사이에 극빙기가 도래한다. 러시아 지질학자들이 이 시기를 사탄기라고 부를 만큼 혹독하게 추웠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는 동북아시아의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세형돌날문화를 창출하였고 구석기시대 말기까지 넓은 지역에서 살았다. 세형돌날문화는 화순 사창유적에서 발견되었다. 불과 폭 0.5cm, 길이 2-5cm의 작은 돌날을 떼어내는 이 기법은 인류 최대의 벤처 상품이었다. 이 작은 돌날

은 나무, 뼈의 가장자리에 촘촘히 결합되면서 파괴적인 무기로 변한다. 시베리아에서 이 도구는 실제로 들소의 머리에 박혀 있는 채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석기문화는 영산강 유역 상류에 위치한 화순 사창유적에서 발견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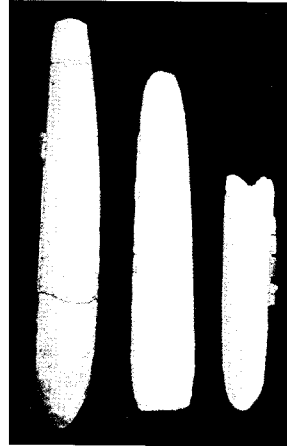
고, 영산강 중류 함평천에서 가까운 장년리 당하산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림 9) 화순 사창유적의 선경과 출토유물
(上: 발굴장면, 中: 1문화층, 下: 2문화층)



(그림 10) 화순 사창유적 출토 후기구석기시대 유물(3문화층)



(그림 11) 시베리아 출토 결합석기

3. 다지역기원론으로 본 영산강유역의 구석기문화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자갈돌석기들은 그 형태가 매우 오래된 전기구석기시대에 만들어진 것들과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지질환경의 특성과 절대연대의 결과로 볼 때 이 유적들의 나이는 중기구석기시대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자갈돌석기문화의 특징은 인류의 등장과 이동 그리고 정착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림 12) 후기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사냥모습

영산강 유역의 자갈돌석기문화는 먼 아프리카로부터 인류가 이동하였다는 아프리카 기원론과 같은 단순한 가설로 설명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고학과 체질인류학 연구를 통해 가장 이른 인류의 흔적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유전학의 도움으로 미토콘드리아 이브 이론에 의하면 인류는 한 어머니로부터 출발했으며 그 기원지가 아프리카라는 점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아프리카 기원설은 유전적인 틀이 느슨한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인류로부터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진화하여 전 세계로 이동해 현재의 인류를 구성하였다는 가설이다.

다지역기원론은 아프리카 기원론의 초기인류 등장, 호모 에렉투스의 이동과 아시아에서 정착까지 동일한 개념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초기 인류의 등장은 아프리카이며 호모 에렉투스(혹은 호모 하빌리스)가 아프리카를 출발하여 긴 여정을 통해 100만년 전후로 아시아까지 도달하였다. 호모 에렉투스는 40만년에서 45만년 전 사이 또 다시 대장정에 나서며 더 많은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그림 13) 영산강 유역 구석기유적 분포도

하지만 이때부터 호모 에렉투스는 매우 역동적인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 정착한 호모 에렉투스는 각 지역별로 형성되어 있는 기후 환경에 따라 적응하였

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와 체질은 점차 호모 사피엔스화 되어 갔다. 이러한 고정에서 아프리카로부터 이동된 새로운 문화와 관계없이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각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문화를 만들어 냈다. 따라서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이야말로 지역적이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적어도 10만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다. 이곳에 첫발을 내딛었던 사람들은 설령 도구가 크고 단순하여 사용하기에 약간 불편하였더라도 강자갈을 가지고 석기를 만들어 쓰길 좋아했다. 하지만 과도기를 거쳐 후기구석기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좋은 석재로 새로운 도구를 제작해 보았고, 새로운 기술도 접했던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강자갈로 도구만들기를 즐겨했다. 아마도 그들은 이 거친 도구들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불편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물론 불편한 부분은 뼈, 뿔, 나무를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어 채워 나갔을 것이다. 한편 돌날때끼 기법 및 정교한 잔손질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후기구석기 말기에는 구석기시대의 가장 발달된 세형돌날문화를 받아들여 동북아시아의 다른 구석기시대 사람들과 같이 새로운 석기시대의 문을 열었다.

그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은 영산강 주변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남겨놓은 지역적 산물이다. 영산강 최초의 인류는 아시아의 자갈돌석기문화를 공유하며 영산강을 떠나 금강으로 한강으로 혹은 낙동강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그들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어갔다. 그들의 역동성은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더 멀리 중국의 황하강과 양자강에까지 이르렀을지 모른다. 영산강은 이와 같이 빙하기를 거치면서 추웠던 환경을 극복하고 지금 영산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어준 '생명의 젖줄'인 것이다. 이제 10만년 동안 이 영산강을 있는 그대로 물려준 먼 과거 선사시대 영산강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때이다. 🌍